

2017학년도 적성모의고사 시험지

학교		반		번호		성명	
----	--	---	--	----	--	----	--

◆ 시험 시간 및 문제 수

시간	영역 및 문제 수		
60분	국어	25 문제	총 50문제
	수학	25 문제	

◆ 답안지에 학교, 성명, 계열, 학교코드, 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및 마킹하세요.

◆ 수학 문제풀이(계산)는 시험지의 여백을 활용하세요.

※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세요.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

(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 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나)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내일의 별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들어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김현승 <지각(知覺)>

1. (가)의 ㉠과 <보기>의 표현상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 기>

冬至(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황진이>

- ①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이 아닌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변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2. <보기>의 다음 시어들 중 (나)의 ㉡과 그 이미지가 상응하는 것은?

<보 기>

태양(太陽)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a밭에도
우리는 헐어진 b성(成)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c하늘에
오롯한 d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신석정 <꽃뎀불>에서

- ① a
- ② b
- ③ c
- ④ d

3. 다음은 (가)에 대한 감상이다. 내재적 의미에 주목한 것은?

- ① 보람 : ‘-라’라는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② 유림 : 이 시를 읽고 나서 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 ③ 회정 : 독립운동가인 시인의 행적을 고려하면 ‘매화향기’는 고매(高邁)한 정신을 상징하는 것 이야.
- ④ 경아 : 시인의 역사의식을 감안하면 ‘광야’라는 말은 단지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으로 이해할 수 있어.

4. (나)의 화자가 성적이 떨어져 실의에 빠진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괜찮아, 성적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괴로워하니.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 ② 다 털어 버리고 바람 쐬러 놀이 공원에 가자. 놀다 보면 성적 떨어진 일은 잊을 수 있을 거야.
- ③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해서 떨어진 성적이 다시 오르지 않아. 일단 모든 일을 잊고 집에 가서 쉬도록 해라.
- ④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열심히 공부한다면 다음에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야.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8)

(앞부분의 줄거리) 그(권씨)는 나(오 선생)의 문간방에서 전세를 얻어 살게 된다. 얼마 후 그의 아내가 순산을 하지 못해 분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의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 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아, 그거 참 안됐군요’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하는 상투적인 말로 선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십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 다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분만비 1, 2만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겨를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

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중략>

“바쁘실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그의 두툽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썽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것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① “오 선생, 이래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

그것뿐이었다.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고팡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중략>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찌기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땀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물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현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걸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걸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혹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5. 위 글을 읽는 과정에서 안의 어휘에 주목하여 ‘권씨’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 그는 평소에는 언어를 점잖게 사용해 온 편이다.
- ② ‘막별이’→ 그는 변변한 일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다.
- ③ ‘식칼’→ 그는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되었다.
- ④ ‘문간방’→ 그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으로 뭉쳐진 한 가정의 가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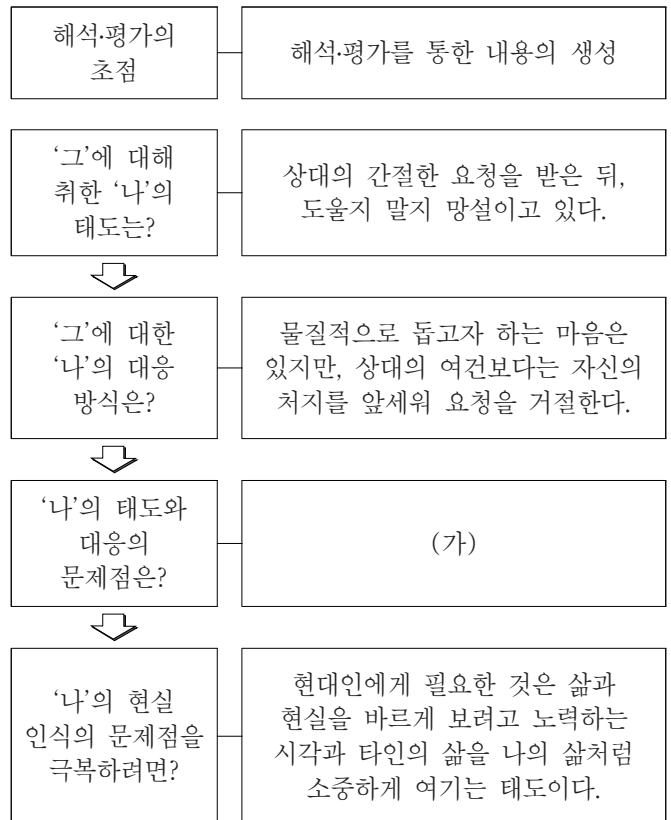
6. 작가가 창작 과정에서 ㉠, ㉡와 관련하여 구상했을 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압적인 현실의 힘에 억눌려 현실에 차츰차츰 타협하는 인물로 설정하자.
- ② 현실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자존심은 끝내 버리지 않는 인물임을 보여주자.
- ③ 겉보기와는 달리 내면의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내자.
- ④ 현실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욕망까지도 포기하는 인물로 그려내자.

7. ㉠과 관련하여 발화자가 떠올렸을 법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당신이 지금 대문으로 나가야만 훗날 내가 당신을 뒤흔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 ②‘지금 당신이 저지른 행동을 당신의 가족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피신부터 해야 해요.’
- ③‘당신이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밖에 없었듯이, 나도 현재 당신을 모른 채할 수밖에 없어요.’
- ④‘현재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강도 신분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권씨여야 해요.’

8. 위 글에서 나타나는 ‘나’의 현실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는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생성하고자 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 ② 남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잘못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 ④ 착한 마음 이면에 개인의 입장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아니리〉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 하러 가실까요?” “환자(還子) * 말은 호방(戶房)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 굶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나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구 믿고 가나? <중략> 내 도복 [道袍] 좀 내 오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달구장 * 은 장이 아닌가?” 홍보가 치장을 채리고 질청(秩廳)을 들어간다,

〈자진모리〉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 치레를 불작시면, 철대 부러진 헌 파립(破笠), 버레줄 총총 매어 조새 갓끈을 달아 써. 면자 떨어진 헌 망진(網巾) 밥풀 관자(貫子) 노당줄을 뒷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팔자 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아니리〉

홍보가 들어가며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핍할망정 반남 박씨(潘南朴氏)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허나, 존경을 할까? 아서라,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리는 수밖엔 없다.’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박 생원 들어오시오?” “호방 뵈 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 “양도(糧道)가 부족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박 생원,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座首)가 병영(兵營) 영문(營門)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냥씩 서른 냥은 쏘아 논 돈이요, 마샷까지 닷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니 가고 말고, ㉢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타고 갈 것 없고, 내 정강이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닷냥을 나를 주게.”

〈중모리〉

저 아전 거동을 보아라. 켈문을 철쭉 열고 돈 닷냥을 내어 주니, 홍보가 받아 들고, “다녀 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오.” 박홍보 좋아라고 질청 밖으로 썩 나가서, “얼씨구나 좋구나. <중략> 돈, 돈, 돈, 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푼 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푼 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늘이우고 죽통을 빠뜨리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서른 닷냥이 들어를 온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에 옳지, 계집 이 사람아, 당돌히 앉아서 좌이부동(坐而不動) * 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뭉쓸 사람!”

- * 환자(還子) : 관가에서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갚는 것을 조건으로 백성에게 꾸어 주던 곡식
- * 달구장 : ‘답장’의 전라도 방언
- * 좌이부동(坐而不動) : 한 곳에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 있음.

9. 위글을 자료로 하여 문학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슬 모듬 : 이 글을 읽어 보면 중모리, 자진모리 등의 장단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분 기준을 알아 보려 해.
 - ② 서리 모듬 : 홍보가 매품을 팔아 돈을 벌려 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승과정의 오류가 없는지 살펴봐야겠어.
 - ③ 안개 모듬 : 동일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는데, 요즘에도 이런 표현이 쓰이는지 조사해야겠어.
 - ④ 구름 모듬 : 문학 작품은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게 마련인데,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지어 돈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해.

10. ㉠과 같은 방식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 ① 서럽게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가 창 끝에다가 턱 껴인 놈
- ②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을 안 들어도 꽤나하고, 기집의 말 들어도 망신 하네.”
- ③ 심 봉사 할 수 없이 심청의 손을 놓고, 치궁글 내 리궁글, 마른 땅에 새우 뛰듯, 아주 자반 뒤집기를 하는구나.
- ④ “왔다.” “누가 왔소? 답답하여 나 죽겠소. 말이나 해 주소.”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 왔다.”

11. ㉡에 드러난 화자의 말하기 방식은?

- ①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고 있다.
- ② 치밀한 논리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③ 반어적 어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다.
- ④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도 공연히 허세를 부리고 있다.

12. ㉢에 담긴 인물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 정강이가 이렇게 멀쩡한데 구태여 말을 타고 가야 할 이유는 없지.
- ②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바가 아니므로, 나는 돈이나 쟁기면 돼.
- ③ 지금 나에게서는 한 톨이 아쉬운 형편인데 말을 타는 품삯도 나를 주면 좋겠어.
- ④ 매를 맞다가 잘못 되면 죽는다고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매품이라도 팔아야지.

13. ㉣에서 알 수 있는 ‘홍보’의 성격은?

- ① 신의와 책임을 중시하는 인물
- ②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인물
- ③ 부부 간의 정을 중시하는 인물
- ④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을 지닌 인물

14. <보기>를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목 : 무서운 것이 무서워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동물은 무엇일까?

㉠ 간혹 그것은 사자나 코끼리처럼 몸집이 큰 동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물들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동물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 그것이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법칙이다.

예를 들면, 사자는 모기를 무서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무서워한다. (㉢) 독침을 가지고 있는 전갈은 파리를 무서워하고, 하늘을 지배하는 때는 ㉣ 거미가 무섭다.

- ① ㉠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아마도’로 바꿔야겠어.
- ② ㉡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③ ㉢은 앞뒤 문장의 인과 관계를 위해 ‘그래서’를 넣어야겠어.
- ④ ㉣은 호응 관계를 생각해 ‘거미를 무서워한다’로 써야겠어.

15. <보기>의 밑줄 친 말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그 문제를 해결하니 후련하여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다.

- ① 빗을 완전히 갇으니 속이 아주 시원했다.
- ② 나는 밖으로 나와 시원한 바람을 쐈었다.
- ③ 그는 공부는 물론이고 말 주변도 시원치 않았다.
- ④ 민수는 성격이 시원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16. 실버타운(노후보장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문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보 기> —

- 시, 청, 후, 미, 촉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우회적 표현을 통해 효심을 드러낸다.

- ① 저희는 언제나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 ② 최고의 설비로서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바람처럼 달려가겠습니다.
△△ 실버 타운으로 오세요.
- ③ 고왔던 어머님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부드러운 아버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미소 그 손길로 당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 ④ 험한 들길 걷고 가파른 산길 넘으시면서도
너는 꽃처럼 향기롭다 이르셨던 당신께
자신 있게 권합니다, ○○ 실버 타운!

17. <보기>의 설명에 대한 적절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우리말에서는 말하는 이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주로 용언의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단정, ㉡확인, ㉢감탄, ㉣사실의 전달, 사실의 추정’ 등 다양한 느낌이 전달된다. ‘철수가 공부를 한다.’는 문장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 ① ㉠ : 철수는 공부를 하고 있어.
- ② ㉡ : 철수가 공부를 하고 있네.
- ③ ㉢ : 철수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 ④ ㉣ : 철수는 공부를 하고 있겠지.

18.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잘못된 것은?

- ① 옷매무새를 반듯이 하고,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오너라.
- ② 꿈지를 슬슬 빼는 네 모습이 마치 꿈무늬 빠진 수탉 같구나.
- ③ 김장 배추를 절이느라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발이 저리다.
- ④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야, 오늘 안으로 마련할 테니 이따가 오너라.

19.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잘못된 것은?

- ① 떠다 : 안내원은 늘 얼굴에 미소를 떠었다.
띄다 : 그 여배우는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 ② 메다 : 배낭을 메고 해외여행을 떠났다.
매다 : 마을 입구 느티나무 가지에 그네를 매었다.
- ③ 썩이다 : 부모님 속을 그만 썩이면 좋겠다.
썩히다 : 인재가 초야에 묻혀 재주를 썩히다니 안타깝다.
- ④ 벗어지다 : 구두가 꼭 끼어 벗어지지 않는다.
벗겨지다 :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20. 밑줄 친 표현 중, 문맥상 비슷한 의미를 가진 쌍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다.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 ② [마음에 드는 사람은 혼하지 않다.
[마음에 차는 사람은 혼하지 않다.
- ③ [철수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다.
[철수는 아직도 철이 나지 않았다.
- ④ [고향 마을은 여전히 내 눈에 익었다.
[고향 마을은 여전히 내 눈에 남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1-25)

일제 침략과 함께 우리말에는 상당수의 일본어가 그대로 들어와 우리말을 오염시켰다. 광복 후 한참 뒤까지도 일본말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예사로 우리의 입에 오르내렸다. 일제 35년 동안에 뚫고 들어온 일본어를 한꺼번에 우리말로 바꾸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원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 동안은 우리나라가 때로는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인 말과 글을 가꾸는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일찍이 주시경(周時經) 선생은 말과 글을 정리하는 일은 집안을 청소하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집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마저 혼몽(昏夢)해지는 일이 있듯이, 우리말을 갈고 닦지 않으면 국민정신이 헤이해지고 나라의 힘이 약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일제 통치하에서도 우리 선학(先學)들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혼신의 정열을 기울일 수 있었다.

나는 얼마 전 어느 국어학자가 정년을 맞이하며 자신과 제자들 글을 모아 낸 수상집의 차례를 보고, 우리말을 가꾸는 길이란 결코 먼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차례를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첫째 마디, 둘째 마디’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평평하게 닦아 놓은 넓은 땅’을 뜻하는 ‘마당’에다 책의 내용을 가른다는 새로운 뜻을 준 것이다.

새로운 낱말을 만들 때에는 몇몇 선학들이 시도했듯이 ‘매, 가름, 목’처럼 일상어와 인연을 맺기가 어려운 것을 쓰거나, ‘엮, 묶’과 같이 낱말의 한 부분을 따오는 방식보다는 역시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새로운 개념을 붙여넣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언어 대중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장에서는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불렀다. 이런 말들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훌륭한 우리 고유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도 실리지 않고 그냥 폐어(廢語)가 됐다. 지금은 고향에 가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속도로의 옆길을 가리키는 말을 종전에 써 오던 용어인 ‘노견(路肩)’에서 ‘갓길’로 바꾸어 언중이 널리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언어생활도 이제 바른 방향을 잡아 가고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21. 윗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일제 침략 이후 우리나라에 많은 일본어가 들어와 사용되었다.
- ②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가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 ③ 주시경 선생은 우리의 말과 글을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 ④ 국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외래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만들어졌다.

22.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말을 가꾸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외래어는 모두 고유어로 바꾸도록 하자.
- ② 새롭게 낱말을 만들 때에는 낱말의 한 부분을 따오도록 하자.
- ③ 언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고유어를 적극 살려 쓰도록 하자.
- ④ 한자어는 이미 우리말로 굳어졌으니까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만 고유어로 다듬도록 하자.

23. ㉠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의 뜻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대로 같이 가다.
- ②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
- ③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
- ④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

24. ㉡과 같은 설명 방식이 나타나 있는 것은?

- ① 자동차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그 용도에 따라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등으로 나눌 수 있어.
- ② 공부는 탐 쌓기와 같아. 탐을 쌓을 때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말듯이, 공부도 처음 시작할 때 기본 개념을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어려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 ③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의인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열사, 유관순 누나 등이 모두 다 그런 분들 아니겠어.
- ④ 우리 시골집은 참 근사해. 집 뒤쪽으로는 산이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앞으로는 들판이 펼쳐져 있어. 그리고 그 들판을 지나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개천이 흐르고 있어.

25. ㉢에 추가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클’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동아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 ② ‘ㄱ름’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강(江)’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 ③ ‘애닭다’라는 말을 대신하여 ‘애달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 ④ 사람에게는 ‘이빨’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30. 0이 아닌 두 실수 a, b 에 대하여 $0 < \frac{a}{b} < 1$ 일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 $$\begin{array}{ll} \textcircled{1} \quad ab > 0 & \textcircled{2} \quad a < b \\ \textcircled{3} \quad 0 < a & \textcircled{4} \quad \frac{b}{a} < 0 \end{array}$$

31. 두 직선 $x+2y-3=0$, $2x-y-1=0$ 의 교점과 점 $(4, 2)$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 $$\begin{array}{ll} \textcircled{1} & 3x - y - 10 = 0 \\ \textcircled{3} & x + 3y + 2 = 0 \end{array} \qquad \begin{array}{ll} \textcircled{2} & x + 3y - 2 = 0 \\ \textcircled{4} & x - 3y + 2 = 0 \end{array}$$

32. 원 $x^2 + y^2 + 4x - 2y - 4 = 0$ 위의 점 A 와 점 $P(1, -3)$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을 M , 최솟값을 m 이라 할 때, $M+m$ 의 값은?

- ① 9 ② 10
③ 11 ④ 12

33. 이차함수 $f(x) = ax^2 + bx + c$ 의 x 절편이 $-1, 3$ 이고, y 절편이 6 일 때, $f(2)$ 의 값은?

- ① 0 ② 2
③ 4 ④ 6

34. 이차함수 $y = x^2 - 2kx + k^2 - k + 1$ 의 꼭짓점이 직선 $y = -2x + 3$ 위에 있을 때 k 의 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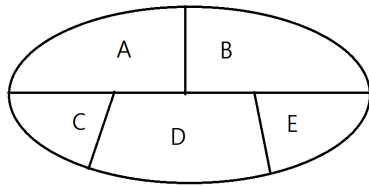
- ① 1 ② 2
③ 3 ④ 4

36. *special*의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모음은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 [illegible]

35.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E 5개의 영역을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의 색연필로 칠



하러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 ① 120 ② 240
③ 540 ④ 720

37. 여학생 5명, 남학생 4명 중 3명의 대표를 선발하려고 한다. 적어도 여학생은 한 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 ① 64 ② 72
③ 75 ④ 80

38. 두 행렬 $A = \begin{pmatrix} 1 & 0 \\ -1 & 1 \end{pmatrix}$, $B^{-1} = \begin{pmatrix} 2 & 1 \\ 1 & 2 \end{pmatrix}$ 에 대하여
행렬 $(AB)^{-1}$ 의 모든 성분의 합은?

- ① 8 ② 9
③ 10 ④ 11

39. 다음 행렬이 나타내는 그래프의 꼭짓점의 개수를 n , 변의 개수를 e 라 할 때, n , e 의 합 $n + e$ 의 값은?

$$M = \begin{pmatrix} 0 & 1 & 1 & 1 \\ 1 & 0 & 0 & 1 \\ 1 & 0 & 0 & 1 \\ 1 & 1 & 1 & 0 \end{pmatrix}$$

- ① 6 ② 7
③ 8 ④ 9

40. $\sqrt[3]{\frac{\sqrt[5]{x}}{x}} \times \sqrt{\frac{x}{\sqrt[5]{x}}} \times \sqrt[5]{\frac{\sqrt{x}}{\sqrt[3]{x}}} = x^{\square}$ 일 때, \square 안에
알맞은 수는?(단, $x > 0$, $x \neq 1$)

- ① $\frac{1}{2}$ ② $\frac{1}{3}$ ③ $\frac{1}{6}$ ④ $\frac{1}{15}$

41. $x = \log_2(\sqrt{2} - 1)$ 일 때, $4^x + 4^{-x}$ 의 값은?

- ① 2 ② 6
③ 8 ④ 12

42. $100 < x < 1000$ 인 실수 x 에 대하여 $\log x^2$ 과 $\log \sqrt{x}$ 의 가수의 합이 1 일 때, 모든 x 의 값의 곱은?

① $10^{\frac{24}{5}}$

② $10^{\frac{26}{5}}$

③ $10^{\frac{27}{5}}$

④ $10^{\frac{28}{5}}$

43. 함수 $f(x) = \log_{\frac{1}{2}}(3-x) + \log_{\frac{1}{2}}(x+1)$ 의 최솟값은?

① -4

② -2

③ 2

④ 4

44. 이차방정식 $x^2 + ax + b = 0$ 의 두 실근 α, β 에 대하여 $\alpha, 4, \beta$ 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alpha, -2, \beta$ 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a, b 의 합 $a+b$ 의 값은?

① -4

② -2

③ 2

④ 6

45. 수열 $\{a_n\}$ 에 대하여 $a_1 = -2, a_2 = 1$ 이고, $a_{n+2} = a_{n+1} - a_n$ 일 때, a_{10} 의 값은?

① -2

② -1

③ 1

④ 2

46. $\sum_{n=1}^{\infty} \frac{1}{1+2+3+\dots+n}$ 의 값은?

- ① 1 ② $\frac{3}{2}$ ③ 2 ④ $\frac{5}{2}$

47. 함수 $f(x) = \begin{cases} x^2 + ax + 2 & (x \geq 1) \\ 2x + b & (x < 1) \end{cases}$ 가 $x = 1$ 에서 미분가능하도록 하는 상수 a, b 의 합 $a + b$ 의 값은?

- ① 0 ② 1 ③ 2 ④ 3

48.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t 초 후의 속도가 $v(t) = 4 + 2t - t^2$ 일 때, 점 P 의 시각 $t = 3$ 에서의 위치는?

- ① 10 ② 11 ③ 12 ④ 13

49. 부등식 $x + y + z \leq 3$ 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인 해 (x, y, z) 의 개수는?

- ① 18 ② 20 ③ 21 ④ 24

50. 20명을 모집하는 A 학과 적성고사 전형에 1000명의 학생이 지원하였다. 지원한 학생들의 적성고사 성적은 정규분포 $N(65, 100)$ 을 따른다고 한다. 이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가?

- ① 75 ② 80 ③ 85 ④ 90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